

『佔畢齋集』의 板本계통 研究*

A Study on a Collectin of Works by Instructor, JEOMPIL-JAE(佔畢齋)

서 강 선 (Seo, Kang-Seon)**

◁ 목 차 ▷

- | | |
|---------------------|---------------------|
| 1. 서 론 | 2.4 1869년 己巳本과 보유 |
| 2. 각 판본의 대비 | 後刷本の 대비 |
| 2.1 『佔畢齋集』과 『梅堂稿』의 | 3. 『점필재집』의 판본계통과 선본 |
| 관계 | 설정 |
| 2.2 경진본과 회당고의 판심대비 | 4. 결 론 |
| 2.3 경진본과 기축본, 보유후쇄된 | <참고문헌> |
| 기유본의 대비 | |

<초 록>

『佔畢齋集』은 저본에 대한 여러 해제의 오류로 인하여 연구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들은 그 정보를 그대로 인용하는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佔畢齋集』이 4간 5후쇄 되면서 현존하는 8종의 판본은 시집과 문집이 편차가 바뀌거나 『彝尊錄』이 보유되거나 제외되었다. 또한 연보와 유문이 보유되거나 다시 『彝尊錄』이 보유되면서 600여수의 시가 산삭되었고, 많은 字句가 바뀌었다. 그리고 많은 異本을 산출하였다. 『佔畢齋集』의 이러한 다양한 판본을 수집하여 각 판본의 변천과정을 조사하고, 계보를 작성하여 『佔畢齋集』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해제에 대한 오류는 없을 것이다.

『佔畢齋集』은 善本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선본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전국에 산재해 있는 1520년 경진본을 모아 『회당고』까지 편제되어있는 완벽한 1520년 경진본을 복원하는 것이고, 나아가 일본에 존재하는 『점필재집』 抄本으로 의심가는 『점필재집』 21책을 입수하여 최초의 『점필재집』을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겠다.

要語: 佔畢齋, 金宗直, 佔畢齋集, 판본계통, 梅堂稿, 彝尊錄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M0059).

**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전임연구원(sskangseon@empas.com)

접수일: 2014년 3월 10일 최초심사일: 2014년 3월 15일 심사완료일: 2014년 3월 20일

<ABSTRACT>

Until now is no correct bibliographical introduction of The Complete Collection of Jeompiljae's Writings. It is because there is no authentic edition of The Complete Collection of Jeompiljae's Writings. Scholars made mistakes by quoting the various errors on the existing editions of the Jeompiljae's Writings.

As the eighth edition of The Complete Collection of Jeompiljae's Writings is published, the orders of his poetry and essays on the existing seven editions have changed, and "Ijonrok" has been added. Over six hundreds poetry was added and many words on the poetry were changed with the adding of "Ijonrok." Many different versions of the writings were discovered.

It is necessary to collect all the different editions of The Complete Collection of Jeompiljae's Writings, investigate how the differences among the different editions were created, make pedigree of the editions, remove the errors on the editions, and then provide correct information to the scholars.

The goal of this thesis is to show how the different editions of The Complete Collection of Jeompiljae's Writings have been made, through the study on the prefaces of all the editions.

There is no authentic edition of The Complete Collection Jeompiljae's Writings. Therefore, making of its authentic version is the first job to be done. In that purpose we need to recover all the segments of the 1520 edition, which are scattered all over Korea. The twenty on volumes found in Japan also should be investigated. These volumes seem to be from the first edition of The Complete Collection of Jeompiljae's Writings.

Key words: Jeompiljae, Jeompiljae's Writings, Affiliation of Woodblock-printed book, Ijonrok, Whoidanggo

1. 서론

『佔畢齋集』은 김종직이 물세 후 그의甥姪인 康伯珍이 詩文을 수습하고, 梅溪 曹偉가 17卷으로 편집하고 교정한 후 成宗이 乙覽한 후 간행하려 했으나 문집의 구성이 번잡하여 간행되지 못하고, 단지 “文 1권”을 탈고하는데 그쳤다. 이를 조위가 간행자금이 없어 미루다가 전라도 관찰사로 재직 시에 자금을 모아 간행하려 했으나 조위가 喪을 입어 鄭錫堅에게 보내져 이를 정석견이 1495년(乙卯)에 간행하였다. 이는 전질이 간행된 것이 아니고 조위가 탈고한 “문 1권”을 간행한 것이다. 1497년(丁巳)에 강백진이 남은 詩를 조위에게 간행하자고 요청하자 조위가 탈고하여 전라감사 李仁亨에게 보내어 간행하려했지만 글을 繕寫할 사람이 없는 것을 걱정하여 이수무와 유효산에게 부탁하여 鑄字로 1권을 인출하였다.

그 후 다음해 1498년에 조위가 明나라로 가게 되어 시집의 나머지 4권을 李昌臣에게 주어 李秀茂에게 부탁해서 4권을 인출하게 하였다. 인출한 것은 이인형에게 보내졌고, 또한 本稿의 7권은 이창신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同年인 1498년에 무오사화가 발생하면서 金駟孫이 『成宗實錄』의 사초에 실은 김종직의 「弔義弟文」이 世祖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한 것을 비난한 것으로 인정되어 燕山君이 인출된 문집과 책판을 소각하라고 전교하여 초간본 계열은 모두 불에 타 없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조선 최초의 문집 燬판사건이다. 燬판문집을 포함하여 「점필재집」의 간행사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佔畢齋集』의 간행년도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제기된 판본은 초간본 1495년(乙卯) 文1권 목판본 · 1498년(戊午) 시집5권의 활자본으로 시작하여 1520년(중종 15) 庚辰本, 1649년(인조 27) 己丑本, 1789년(정조 13) 己酉本, 1869년(고종 6) 己巳本, 1892년(고종 29) 壬辰本, 1917년 丁巳本, 1938년 戊寅本까지 440여년간 총 8종에 이른다.

이러한 『佔畢齋集』은 현재 5~6종의 영인본이 간행되었지만 저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정확한 記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많은 해제가 오류를 범한 채 남아있어, 연구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

은 그 정보를 그대로 인용하는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佔畢齋集』이 “4간 5후쇄” 되면서 현존하는 7종의 판본은 시집과 문집이 편차가 바뀌거나 『彝尊錄』이 보유되거나 제외되었다. 또한 연보와 유문이 보유되거나 다시 『彝尊錄』이 보유되면서 600여수의 詩가 산삭되었고, 많은 字句가 바뀌었고, 많은 異本을 산출하였다.

『佔畢齋集』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로 김광수의 『佔畢齋先生文集 研究』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판본의 종류를 丁巳本(1497), 庚辰本(1520), 己丑本(1649), 己巳本(1869), 壬辰本(1892), 戊寅本(1938)으로 분류하여 자세하게 해당 판본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1996년에 계명한문학연구회에서 이원주 교수 소장본의 경진본 등을 영인하여 『佔畢齋先生全書』를 간행하고 권두에 해제를 붙였다. 여기서는 김광수의 주장대로 판본을 庚辰本(1520), 己丑本(1649), 己巳本(1869), 壬辰本(1892), 戊寅本(1938)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2006년에 김윤수는(“『佔畢齋集』의 판본 연구,” 『서지학연구』) 그간 다소 혼란했던 『佔畢齋集』 판본을 정리하였다. 또한 김광수의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기유본(1789)과 정사본(1917)을 추가로 밝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점필재집』은 판본계통이 명확하지 않다.

그 이외의 몇 편의 논문에서는 『佔畢齋集』을 소개하거나 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는 정도이다.

일본에서는 藤本幸夫의 『日本現存朝鮮本研究 集部』에서 일본에 현존하는 『佔畢齋集』을 조사하여 「究覈」을 부치었으나 일부는 연도가 불분명하고 刊行地와 刊行人에 대한 오류가 많다.

본고에서는 『佔畢齋集』의 다양한 판본의 변천과정을 조사하고, 계보를 파악하여 『佔畢齋集』의 정확한 계통을 밝히고자 한다. 점필재를 연구한 많은 연구자들이 1649년 기축본을 근거로 하여 연구를 하여왔다. 그러나 기축본은 善本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본에 대하여 설정하고자 한다. 선본이 설정되어야 定本에 관하여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각 판본의 대비

2.1 『佔畢齋集』과 『悔堂稿』의 관계

1520년 庚辰年에 간행된 『점필재집』은 현존하는 『점필재집』의 계통 중 最古本으로 1520년 中宗15年 庚辰年에 善山에서 간행되었다.

1520년 경진본의 완질은 藤本幸夫의 『日本現存朝鮮本研究 集部』에 의하면 일본 輪王寺에 소장되어있는 『佔畢齋集』은 남곤의 서가 있는 경진본인데, 이는 시집 23권, 문집2권, 『悔堂稿』 1권 등 총 8책이라고 하였다.¹⁾ 김윤수의 연구에 의하면

『佔畢齋集』 관계 기록은 7책이지 8책을 언급한 것은 없으니, 원래 7책인데 회당고가 포함되어 8책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이런 편성 체제는 희귀한 예로서 경진본 간행 이후 임진왜란 이전에 형성된 체제일 것으로 여겨진다. 임진왜란으로 회당고가 소실된 뒤 회당고의 존재가 망각되어 재증간본 이후는 『悔堂稿』가 편성되지 못한 7책 체제로 고착된 것이라.²⁾

하였다. 상기의 내용을 보면 『佔畢齋集』 간행시 『悔堂稿』가 같이 간행된 것이 아니고 후에 보유되었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藤本幸夫의 연구에 의하면 『悔堂稿』는 간행지가 선산이라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本書는 점필재 김종직의 詩文集이며, 따로 『佔畢齋集』 二十五卷이 있다. 김종직에 대한 同書 참조. 日光山 輪王寺에는 兩者가 같이 존재한다. 두 책은 짝이 되어 간행시켰다고 생각되어지며 『점필재집』은 『攷事撮要』(1568년경)에는 善山에 冊板이 있다고 한다.³⁾

일본에 존재하는 경진본 또한 初印本은 아니며 보관되어진 판본이지만 그래도

1)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集部』(京都大學學術出版會, 平成十八(2006)), 834.

2) 김윤수, “『佔畢齋集』의 판본 연구,” 『書誌學研究』第35集(2006. 12), 320.

3)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集部』(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 233-234.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경진본이라고 추측된다.

『悔堂稿』는 『佔畢齋集』 간행 후 보유된 것이 아니고 처음 간행 시부터 『佔畢齋集』에 편제되어 있었다. 『悔堂稿』의 판심을 살펴보면 『佔畢齋集』의 판심과 동일하며 보관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판심을 살펴보면 『佔畢齋集』 경진본(1520년)도 후에 보관되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경진본의 보관되어지면서 바뀐 판심과 『悔堂稿』의 보관되어지며 바뀐 판심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는 『佔畢齋集』이 보관되어질 때 『悔堂稿』도 같이 보관되어진 것을 미루어 알 수가 있다.

국내에서 『悔堂稿』는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의 점필재문집 승 6冊 중에서 『畢齋集外』라고 하는 책으로 존재하고 있다.

김광수는 『悔堂稿』는 1冊으로서 總70장인데 序와 跋이 없다. 『悔堂稿』에 실린 시를 분류하면 五言古詩가 35首, 七言古詩가 28首, 五言律詩가 60首, 七言律詩가 68首, 五言絶句가 31首, 七言絶句가 109首로서 總 331首이다. 김광수의 연구에 의하면 『悔堂稿』에 실린 詩編數, 總 331數 가운데 特異할 만한 점은 『佔畢齋集』에는 한 수도 실려 있지 않고 『續東文選』에 실린 점필재의 시 「仙槎寺」, 「圍棋贈文緯」, 「晩起」 등 3首 만이 수록되었으므로 점필재의 시 328首가 더 발견되었다고 하였다.⁴⁾

회당이 혹시 점필재의 또 다른 字號라고 생각되나 기존의 연구에서 김광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 수 없다고 하였고, 김영봉은 김종직이 “悔堂”이란 호를 썼다는 기록은 없고 의문을 밝혀줄 아무런 단서도 없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김영봉은 이동환 교수의 “토일본”의 해제를 인용하고 『悔堂稿』의 시를 분석하여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悔堂稿』는 김종직의 시집임에 틀림이 없음이 확인된다고 입증하였다.⁵⁾

일본 藤本幸夫의 연구에 의하면 “撰者傳 金宗直 字季昱 號佔畢齋・悔堂”⁶⁾이라고 하였다.

4) 김광수, “佔畢齋先生 文集 研究,”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15-16.

5) 김영봉, “『悔堂稿』에 나타난 金宗直의 初期 詩 연구,” 『한국한문학연구』(1999), 102-106.

6)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集部』(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 161.

김운수는 그의 연구에서 김종직이 자신을 “悔堂”이라고 지칭하는 詩를 발견하였는데 『佔畢齋集』과 『東文選』에 실려있는 「書國耳所藏水墨三昧簇安堅畫」⁷⁾이라는 칠언고시이다. 여기에 따른 김운수의 연구에 의하면 國耳가 소장한 수묵삼매족자에 점필재가 쓴 시를 보면 결론에

君不見通班碌碌悔堂翁	그대는 높은 관직에 보잘 것 없는 회당의 노인네를 보지 못했나
十年不歸今耳聾 ⁸⁾	십 년 동안 돌아가지 못하여 이제는 귀가 먹었다네.

하였는데 『국역점필재집』의 주석에서 “悔堂翁”은 저자 자신을 가리킨 듯 하나 자세하지 않다고 하였다.⁹⁾

2.2 경진본과 회당고의 판심대비

경진본의 판심은 대부분 上下內向魚尾이며 혹은 上下黑口 또는 上黑口, 下黑口에 上下內向魚尾가 있다. 상하내향어미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처음의 판본이 아니고 최소 1회 이상 보판되어진 판본이다. 계명한문학회에서 영인한 경진본의 판심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영인 경진본의 판심

구분	관심어미	수량
1	상하 내향 어미	356
2	흑구 상하 내향 어미	100
3	상내향	3
4	흑구 하 내향 어미	1
5	기타	9
총계		468

7) 『佔畢齋集』卷20 張4, 「書國耳所藏水墨三昧簇安堅畫」.

8) 『佔畢齋集』卷20 張4.

9) 김종직 저, 임정기 역, 『국역점필재집』 II (민족문화추진회, 1998),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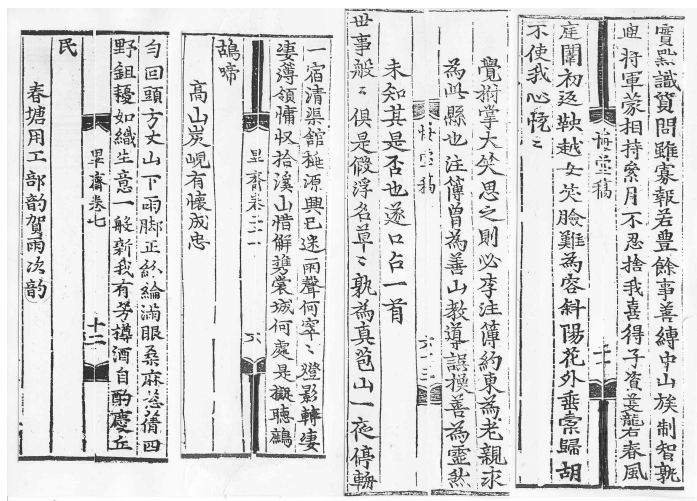
위의 도표에서 “기타”는 계명한문학회에서 영인하면서 경진본의 낙장을 1649년 기축본에서 보충한 張들이다.

충남대학교 소장본 『梅堂稿』의 版心도 上下內向魚尾가 主를 이루고 上下黑口內向魚尾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梅堂稿』는 처음부터 『佔畢齋集』에 편제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다시 보관되어지면서 『佔畢齋集』과 동시에 보관되어진 것도 알 수가 있다. 『梅堂稿』의 版心은 上下內向魚尾가 主를 이루고 있고 黑口上下內向魚尾가 22張을 차지하고 있다. 1張서 23張까지 5張을 제외하고 黑口上下內向魚尾로 구성되어 있으며 5張을 포함하여 24張부터 70張까지 모두 上下內向魚尾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梅堂稿』의 版心

순번	판심	張
1	흑구상하내향어미	1, 2, 3, 4,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合: 22張
2	상하내향어미	5,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合: 48張

版心으로 1520년 庚辰本과 『梅堂稿』를 판단한다면 처음에 上下內向魚尾로 되어있는 판본이 보관되면서 黑口上下內向魚尾로 되어있는 板으로 교체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다.



<서영 1> 경진본과 회당고의 판심

위 서영에서 좌측의 두 개는 1520년 경진본의 판심이고, 우측부터 두 개는 『悔堂稿』의 판심어미이다. 경진본의 상하내향어미와 『悔堂稿』의 상하내향어미가 같고, 경진본의 상하내향후구어미와 『悔堂稿』의 상하내향후구어미가 같다.

그러므로 『悔堂稿』는 후에 보유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1520년 경진본에 편제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으며 黑口上下內向魚尾의 板으로 보관되어질 때 같이 보관되어진 사항도 미루어 알 수가 있다. 이로써 『悔堂稿』는 후에 보유되지 않고 『佔畢齋集』 간행시 처음부터 편제되었던 것이라는 것을 판심 대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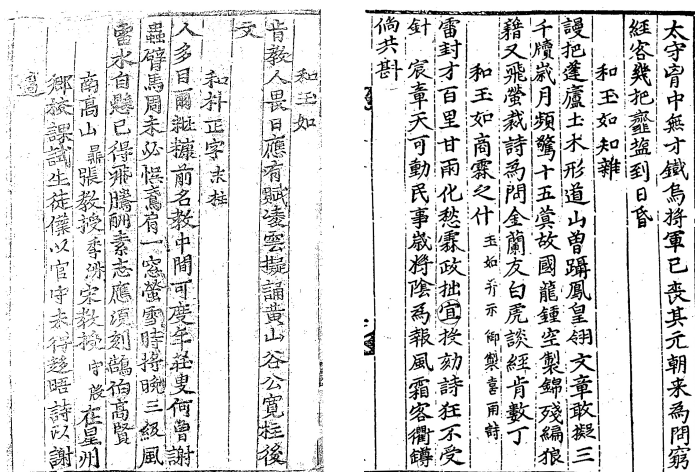
2.3 경진본과 기축본, 보유후쇄된 기유본의 대비

계명한문학회에서 영인한 1520년 庚辰本과 1649년 己丑本의 판심을 대비하였는데 같거나 비슷한 판심이 있었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경진본과 기축본의 판심대비 중 유사한 판심

卷	張
卷1	3, 4, 7, 8, 13, 17, 18張
卷4	8張
卷5	3, 4張
卷7	15張
卷8	14, 15張
卷9	1, 4張
卷11	2, 4張
卷13	7張, 13張
卷14	3, 4, 5, 6, 9, 10, 14張
卷15	1, 2, 3, 4, 5, 6, 7, 8, 13, 14張
文1	25, 26, 27, 28張

이렇게 40개의 張 판심이 同一하거나 類似하다. 대비한 경진본은 “계명한문학 회”에서 영인한 판본이다. 이 중에는 경진본의 낙장을 기축본에서 보충한 부분이 있다. 보충한 부분의 판심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서영 2> 경진본 卷13, 7張 후면

<서영 3> 경진본 卷13, 7張 전면

太守宵中無才鐵。烏將軍已喪其元。朝來爲問窮
 經客。幾把蠶籠到日昏。
 和王如知雜
 謾把蓬廬土木形。道山曾躡鳳皇翎。文章敢擬三
 千牘。歲月頻驚十五莖。故國龍鍾空製錦。殘狼
 藉又飛螢。裁詩爲問金蘭友。白虎談經肯數丁。
 和王如商霖之什 玉如并示 仰製書兩詩
 雷對才百里。甘雨化愁霖。政拙宜按劾。詩狂不受
 針。宸章天可動。民事歲將陰。爲報風霜客。嚮樽
 倘共斟。
 畢齋卷十三 七
 和王如
 肯教人畏日。應有賦凌雲。擬誦黃山谷。公寬往後
 文。
 和朴正字 末并
 人多目爾批。糖前名教中間可度年。莊叟何曾謝
 虫臂。馬周未必恨蒼肩。一窓螢雪時將脫。三級風
 雷水自懸。已得飛騰酬素志。應須刻鵠伯高賢。
 南高山 昂張教授李徽 宋教授 守然 在星洲
 鄉校課試生徒。僕以官守。未得趨晤。詩以謝
 過。

<서영 4> 기축본 卷13 7張

위의 판심은 영인한 경진본과 기축본의 13권 7장인데 전면만 결락되어 보충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전면의 판심은 동일하지만 후면의 판심은 相異하며, 후면의 글씨체가 서로 다르며 字도 틀린字가 있다. 확실한 것으로 예를 들어 후면의 6행 1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虫 蟲

위와 같이 상이하다. 이렇게 전면만 보충한 張이 13권 13장에서도 나타난다. 張 전체를 보충한 것은 여덟 장인데 비교한 것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東南雄麗是吾州。太守風流更絕儔。野外綠蕪揚
子宅。江頭明月仲宣樓。妓圍脫略因賄給。酒令深
嚴為唱酬。逐食崎人空戀泣。三年恩澤洽松楸。
用中甫韻寄通之。
援琴兩鬢已驚秋。逐食春風更百憂。血淚可堪辭
母黨。黃冠猶欲作詩囚。梅邊酒憶遙。飲鴈外書
當早。修他日茅齋三徑就。芒屨竹杖倘經由。
復用前韻寄孫生貧孝祖。
百王要與魯春秋。林下研窮足解憂。物忌孤芳心
可表。人嫌一行首堪回。丘園喜我交遊淡。鄉里惟
君道義修。珍重驚城相送意。驅車終始豈無由。
生食學春秋於我九三月備還
金陵時送我於靈山一門驛
水多寺僧學誼送六種菜
佳蔬種々手題封。因想山中瘦鶴容。採毛不須勤
赤脚。一春猶可養衰翁。
寒食日獨坐池上。
頭白尋春也不中。小軒危坐思何窮。千村寒食挑
花雨。半畝方塘燕子風。上塚人回山漠漠。催租吏
到穀通通。安貧自是駭家事。肯恨幽居甌石空。
杞子健

<서영 5> 경진본 卷15 13張

東南雄麗是吾州。太守風流更絕儔。野外綠蕪揚
子宅。江頭明月仲宣樓。妓圍脫略因賄給。酒令深
嚴為唱酬。逐食崎人空戀泣。三年恩澤洽松楸。
用中甫韻寄通之。
援琴兩鬢已驚秋。逐食春風更百憂。血淚可堪辭
母黨。黃冠猶欲作詩囚。梅邊酒憶遙。飲鴈外書
當早。修他日茅齋三徑就。芒屨竹杖倘經由。
復用前韻寄孫生貧孝祖。
百王要與魯春秋。林下研窮足解憂。物忌孤芳心
可表。人嫌一行首堪回。丘園喜我交遊淡。鄉里惟
君道義修。珍重驚城相送意。驅車終始豈無由。
生食學春秋於我九三月備還
金陵時送我於靈山一門驛
水多寺僧學誼送六種菜
佳蔬種々手題封。因想山中瘦鶴容。採毛不須勤
赤脚。一春猶可養衰翁。
寒食日獨坐池上。
頭白尋春也不中。小軒危坐思何窮。千村寒食挑
花雨。半畝方塘燕子風。上塚人回山漠漠。催租吏
到穀通通。安貧自是駭家事。肯恨幽居甌石空。
杞子健

<서영 6> 기축본 卷15 13張

영인한 경진본 중에 기축본에서 보충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표 4> 기축본에서 보충한 부분

卷	張
卷7	15張
卷13	7張 前面, 13張 前面
卷15	1, 2, 3, 5, 6, 13, 14張

위와 같이 열 장을 기축본에서 보충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호택은 영인본 『佔畢齋先生全書』의 「佔畢齋先生全集을 간행하면서」에서

… 그리고 서지적 사한들을 재점검하고 보존 상태를 일일이 검토하며, 결락된 부분을 채우고 선명도를 가시권 안에 들여와서 한 질의 책으로 나오게 하기까지의 일들은 영인 작업의 일반 통념을 벗어나는 것이었으며, … 10)

하였다. 결락부분을 채웠다는 것은 경진본의 낙장을 기축본으로 보충하였다는 뜻이다. 계명한문학회에서 영인한 경진본 중에서 기축본으로 보충한 張을 제외하면

<표 5> 경진본과 기축본의 유사한 판심

卷	張
卷1	3, 4, 7, 8, 13, 17, 18張
卷4	8張
卷5	3, 4張
卷8	14, 15張
卷9	1, 4張
卷11	2, 4張
卷14	3, 4, 5, 6, 9, 10, 14張
卷15	4, 7, 8張
文1	25, 26, 27, 28張

10) 계명한문학회, “佔畢齋先生全集을 간행하면서,” 『佔畢齋先生全書』 (학민문화사, 1995), 1.

상기와 같이 30장의 판심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조선서지학 연구자인 후지모토 유키오(藤本幸夫 · 65) 도야마(富山)국립대 교수는 최근 『日本現存朝鮮本 研究』에서

『佔畢齋集』

書名: 佔畢齋集, 詩集 二十三卷, 文集 二卷, 附錄 一卷, 彝尊錄 二卷 八冊

撰者: 朝鮮 金宗直

板種: 木版本

刊者: 朝鮮 李曼

刊年: 仁祖 二十七年 己丑(1649)刊, 後修[肅宗初葉 - 中葉 間] 後印

刊地: 慶尙道 密陽 禮林書院

究覈: 위의 나온 책에서 서술한 것과 같고, 연산군 3년 丁巳(1497) 康伯珍의 刊本이 初刊이며, 翌年 戊午史禍에 그 板木이 燒燬되어졌다. 그 후 中宗 15년 경진(1520)에 이르러서 그의 동생 강중진이 重刊했다. 판목은 아마도 善山에 가장시켰다. 本書 康伯珍의 跋文에 後刊語에 의하면, 연산군 丁巳刊本の 판목이 宣祖 25년 임진(1592)의 兵禍에 의하여 燒失했다고 하지만, 이때에 燒失했던 것은 中宗 15년 重刊本の 板木이다. 仁祖 27년 때에는 이미 重刊本の 存在는 망각되었다. 본서는 中宗 15년(1520) 간행 후 전하여 존재하는 것도 드물게 되어서, 백 여년 후의 인조 27년 己丑(1649)에 方伯 李曼(1605-1664)은 문집을 印布하고, 禮林書院에서 『彝尊錄』을 刊行했다. 이 方伯은 慶尙道觀察使이어서 이만은 仁祖 26년 戊子(1648)부터 翌年 己丑에 걸쳐서 그 일을 맡았다. 禮林書院은 밀양에 있고, 明宗 22년 丁卯(1567)創建, 顯宗 10년 己酉(1669) 賜額되었고, 金宗直 · 朴漢柱 · 申季誠을 奉祀했다. 『鏤板考』 卷六에 本書가 『密陽 禮林書院藏(결완)印紙 13牒 13張 1片』에 있다. 文集도 同書院에서 간행되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該書에는 漫漶 · 후에 修補 라고 되어있다.

肅宗 初葉-中葉에 後印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黑口가 있는 곳은 仁祖 때에 刊刻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는 않는다. 『淸芬室書目』에는, 本書 25卷 8冊이 있고, 10行 19字이며, 黑口 혹은 白口이다. 이 책에는 中宗 15년 庚辰(1520) 南呂上潁 南袞의 跋이 존재한다. 『攷事撮要』(1585년경) 善山 條에 『佔畢齋』가 있는 것은 아마도 中宗 15년 刊本일 것이다. 康의 跋文 뒤에 刊記에는 中宗 15년 重刊本이 燒盡된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攷事撮要』에 보이는 것 같이 殘存하여 있었지만, 完全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인조 27년의 간행시에는, 中宗 15년 때의 板木에서 印出하고도 온전하게 남아있던 것, 이것을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새로이 판각했던 것일까? 該 書에 黑口라고 말하고 오래된 板式이 混在한다는 것은 그 때문이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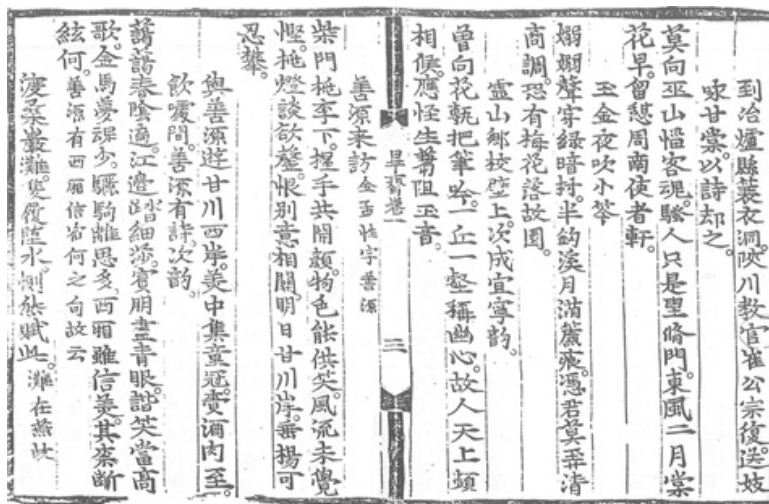
하였다. 후지모토 유키오(藤本幸夫)는 경진본은 소실됐다고 하지만 잔존하였으나 완전한 것은 아니었고, 기축본을 간행시 남아있던 판목을 일부 사용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축본의 판심이 다양하고 종류가 많아 경진본이 수십 차례 교정 보판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판심과 字를 대비하였다. 대비한 결과는 서로 다른 판목이었다.

경진본과 기축본에서 판심이 같은 부분을 일부 예를 들고 서로 다른 판본임을 확인하기 위해 字를 대비하였다. 먼저 경진본과 기축본에서 임의로 한 장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張은 각각 “1卷 3張”이다. 우선 유사한 판심을 지니고 있는 “1卷의 3張”을 살펴보자.



<서영 7> 경진본의 卷一의 三張

11)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集部』(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 834-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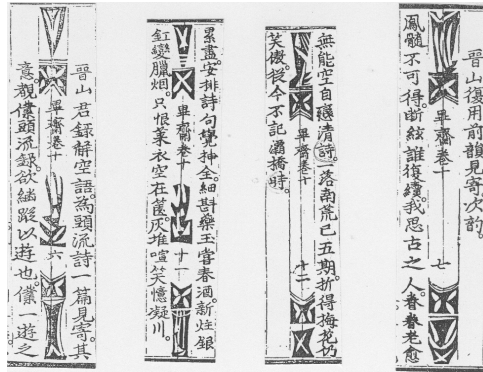
<서영 8> 기축본의 卷一의 三張

상기의 관심이 같은 경진본과 기축본의 두 판본에서 모든 字가 글씨체가 틀리지만 확연히 들어나는 것만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 6> 경진본과 기축본의 상이자

행	경진본	기축본
1행	治襄洞陝 官公宗	治襄洞陝 官公宗
3행	莫棠	莫棠
4행	花慙	花慙

기축본(1649년)은 다양한 판심이 보이는데 기축본에서 나타난 판심 중 특이한 것만 몇 개 소개하자면 다음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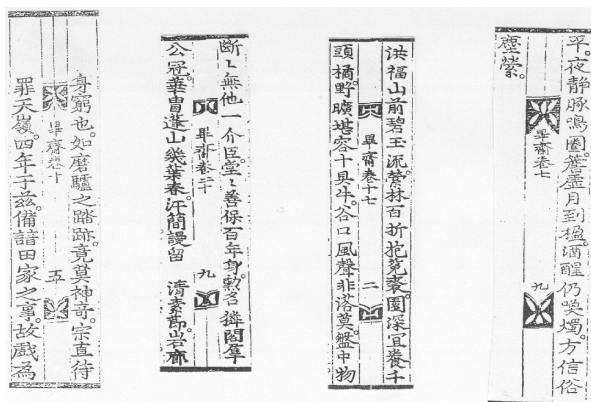
<서영 9> 기축본의 특이한 판심

위의 판심은 특이한 판심으로 분류한 것인데 전부 8판이며 위와 같이 괴이하지만 모두 모양은 통일되지 않았다. 위의 판심이 위치한 張은 10卷 6張~13張까지이다.



<서영 10> 기축본의 “고영”과 行의 판심

위의 판심은 좌측 2개는 “고영” 판심인데 모두 10판이 나타났다. 좌측에서 두 번째 판심은 6개판으로 15卷 13張・15張・16張・17張, 20卷 1張과 2張이다. 이 여섯 장을 제외하고는 “고영”의 글자는 있어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판심의 위치는 15卷 11張・12張・14張, 20卷 3張이다. 우측의 두 개의 판심은 “行”이 새겨진 판심인데 모두 일정하지 않다. 4卷의 1張과 2張 그리고 6張이다.



<서영 11> 불규칙한 기축본의 판심

위의 판심을 보면 정확한 판심의 명칭을 알 수가 없다. 『점필재집』의 1649년 기축본은 대부분의 판심이 불규칙하게 혼재되어있다.

1789년 기유본은 1649년의 기축본을 보관하여 편제를 새로이 한 판본이다. 1649년 기축본에서 『彝尊錄』을 보유한 반면 『彝尊錄』을 제외하고 이헌경의 序文, 「附遺文」과 「佔畢齋先生年譜」, 「附門人錄」, 「戊午史禍事蹟」을 합하여 『佔畢齋先生年譜』로 보유하였다.

기유본에서는 1649년 기축본의 판본을 다시 사용하였으나 冊版이 몹시 마모되어 일부 보관하였다. 1649년 기축본과 기유본의 판심을 대비하여 보니 보관되어진 판은 다음 표와 같다.

<표 7> 기축본을 보판한 기유본의 보판 현황

卷	總板	補板 張	卷	總板	補板 張
卷1	21板	3, 4, 7, 8, 9, 10, 15	卷14	15板	
卷2	16板	2, 5, 6	卷15	17板	13
卷3	15板	1, 2, 8, 11, 12, 13, 14	卷16	15板	
卷4	15板	1, 5, 6	卷17	16板	
卷5	19板	3, 4, 17	卷18	10板	
卷6	18板		卷19	22板	
卷7	16板	3, 4, 5, 6, 13, 16	卷20	14板	2, 3
卷8	15板	2, 3, 14, 15	卷21	11板	
卷9	13板	1, 2, 10, 11	卷22	18板	5
卷10	16板	3, 9, 10	卷23	16板	1, 11, 12, 13, 14
卷11	12板		文1	49板	9, 10, 47, 48
卷12	13板	6	文2	62板	4, 5, 15, 26, 58
卷13	14板	7, 8			
總板	468板	補板: 61개 板			

위와 같이 1789년 보유 보판 기유본은 전부 61개의 판을 보판하였다. 기유본도 『점필재선생연보』는 다른 시기에 판각되어 간행된 것을 판심을 통해 알 수 있다.

2.4 1869년 己巳本과 보유 後刷本의 대비

己巳本(1869년)은 전면 개편하고 새로이 판각한 판본으로서 판심이 모두 일정하다. 己巳本(1869년)은 판심이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이고 앞선 장에서 논했듯이 詩 584首가 삭제되어진 판본이며 “시집 8권, 문집 2권”이며 기유본과 더불어 『彝樽錄』을 제외하고 연보와 문인록, 무오사적을 부록으로 하고 後序·碑銘·碣識·碣文·史禍錄을 덧붙였다. 10行 20字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文集에서는 10行 19字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는 1649년 기축본 文集의 판본을 다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기축본(1649년)의 문집을 다시 사용하면서 일부 보판하였는데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8> 기사본에서 사용한 기축본의 文集보판 사항

卷	己巳本 文集 修補 張	都合
文1	1, 2, 3, 4, 5, 7, 8, 9, 10, 16, 18, 20, 24, 25, 26, 27, 28, 29, 32, 36, 37, 39, 40, 41, 43, 44, 47, 48, 49	26
文2	4, 5, 6, 7, 15, 16, 17, 18, 25, 27, 28, 31, 33, 37, 39, 47, 48, 49, 61, 62	20
總合: 46판		

* 修補 張의 숫자는 板(張)을 의미함, 1은 1張

위와 같이 기사본에서 기축본의 文集 판본을 재사용하면서 총 46판을 보판하였다. 대략 2/5정도 보판되어졌다.

己酉本(1789년)과 己巳本의 『佔畢齋先生門人錄』은 서로 다른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기사본(1869년)을 간행하면서 자금을 충당하기위하여 佔畢齋 金宗直의 嗣孫 金埴이 금품을 수수하고 『門人錄』에 10명의 인명을 추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壬辰本(1892년)은 종손 金昌鉉과 金啓鉉이 책판을 수보한 보판인데, 여기 1892년 보유보판 임진본은 빠졌던 『彝尊錄』을 다시 보유하였다. 다시 보유후 쇄하면서 마모된 기사본의 책판을 보판하였다. 보판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9> 기사본을 후쇄한 임진본의 보판 사항

卷	總板	修補板
詩1卷	29板	9張, 10張
詩2卷	30板	22張, 23張
詩3卷	25板	1張, 2張
詩4卷	25板	5張, 6張, 23張, 24張
詩5卷	41板	
詩6卷	23板	13張, 14張
詩7卷	25板	22張
詩8卷	18板	
文1卷	49板	1張, 2張, 16張, 37張, 39張, 40張, 47張, 49張
文2卷	62板	1張, 14張, 15張, 16張, 17張, 28張, 33張, 37張, 49張, 58張
합계	327板	33張

위의 도표는 김광수 연구의 도표를 인용하였다. 판심을 대비하여 같은 결론을 얻어 김광수의 도표를 수정없이 인용하게 되었다. 임진본에서는 총 33판의 책판이 보관되어졌다. 1649년 기축본과 임진본의 『彝尊錄』은 판심을 대비하여 보니 일부 보관되었는데 내용은 다음 도표와 같다.

<표 10> 기축본과 임진본의 『彝尊錄』 보관 현황

제목	총판	補板 張
彝尊錄上	29	5, 6, 9, 11, 12, 17, 18, 21, 22, 23, 24, 25, 26, 27, 28
彝尊錄下	26	1, 2, 3, 6, 7, 8, 9, 13, 17, 18
彝尊錄附錄	11	1, 6, 7, 8, 9, 10, 11
총계	66	32張

『彝尊錄』은 총 66張 중 32張이 보관되어졌다. 또한 1649년 기축본과 임진본의 『彝尊錄』의 편차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기축본은 『彝尊錄』 下 뒤에 부록이 위치하고 있는 반면 임진본은 『彝尊錄』 上 뒤에 위치되어있다.

기유본의 유문은 「四美亭記」가 없는데 기사본의 유문에는 「四美亭記」가 증보되었다. 또한 유문의 책판은 다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부 개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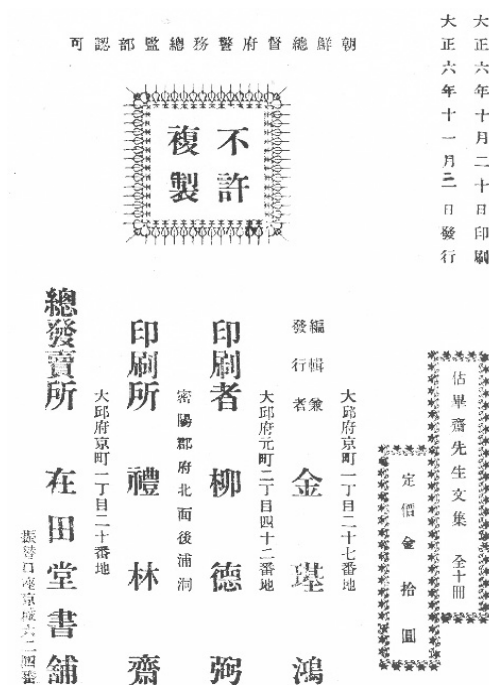
己巳本과 壬辰本은 부록에서 많은 편차가 나는데, 기사본에서 「遺文」이 「附遺文」으로 해서 「嘉善大夫同知中樞府使盧公碑銘」과 「四美亭記」로 편성되어 문집2권 뒤에 편제되어 있는 반면 임진본에서는 부록에 편제되어있다. 己巳本은 김광수의 연구에 의하면 「四美亭記」가 文集2권에 29張이 두 번 있으며 「四美亭記」가 두 번째 29장에 들어있다고 하였는데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己巳本을 조사해 보니 29장이 두 번 있는 기사본이 존재하였다. 이 사실은 기사본이 후에 다시 후쇄하면서 보관되어졌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부록의 편차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1> 기사본과 임진본의 부록 편차

기사본	임진본
謚狀	附遺文
復謚疏	盧公碑銘
禮林書院 請額疏	四美亭記
禮曹回啓	附錄
禮林書院上樑文	行狀
講堂開基告由文	祭文
禮林書院移安告由文	墓祭文
禮林書院常享祝文	跋
禮林書院移建奉安文	復謚疏 識
祭文	禮曹回啓 跋
大洞墓祭文	附禮林書院事蹟 舊序
立神道碑祭位板文	廟宇上樑文 謝韓性源建先朝碑閣文
謝本倅韓性源建先朝碑閣文	請額疏 講堂開基告由文
治爐祠宇址斜給文	賜額致祭文 移建奉安文
辨誣文	常享祝文 移建上樑文
墓所立碑時制文	院中立義 墓所立碑時制文
	告位板門 移安告由文
	復謚附題告由文 禮成祭文

그 이외의 1917년 大正6년본과 1938년 昭和13년본은 대비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기사본과 임진본 계열의 후쇄본으로 대비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 두 판본은 예림서원에서 간행되었으며 현대식 표제지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정사본 또는 무인본이라고 명명한 것을 따르지 않고 표제지의 간행년으로 명칭을 삼았다. 大正6년본은 한지가 아닌 洋紙로 인출되었으며 귀중본은 아니나 유일하게 연세대학교 도서관에만 소장되어있는 희귀본이다.



<서영 12> 1917년 大正6년본 표제지

3. 『점필재집』의 판본계통과 선본 설정

앞에서 논한 것을 정리하면 『점필재집』은 초간본이 훼손된 이후 7간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판본은 3가지이며 8간되었다. 3가지 판본은 초간본이 훼손된 뒤로 처음 간행된 최고본인 1520년 경진본, 전면 재판각이 이루어진 1649년 경진본, 詩600여 수를 삭제하고 전면 재편집·재판각하고, 문집의 판본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보관한 1869년 기사본이다. 이 세 종류의 판본이 보관과 보유, 삭제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판본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세 종류의 판본의 계통을 분류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초간본 韋刊

↓ 再刊

1520년 경진본 · 회당고(임진왜란으로 소실)

↓ 三刊

1649년 기축본 → 기축본(彝尊錄보유) → 기축본을 보관한 기유본(彝尊錄 삭제,
附遺文 등 보유)

↓ 四刊

1869년 기사본 → 1892년 임진본 → 大正6년본 → 昭和13년본

『점필재집』은 1520년 경진본은 임진왜란으로 대부분 소실되어 국내에는 완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후 전면 새로이 판각한 1649년 기축본이 간행되면서 여러 판본으로 파생되었으나 판목은 같은 종류이며 후에 기축본에 『彝尊錄』이 보유되었고, 기축본을 보관하여 간행한 1789년 기유본은 『彝尊錄』을 삭제하고 이현경의 序文, 「附遺文」과 「佔畢齋先生年譜」, 「附門人錄」, 「戊午史禍事蹟」을 합하여 『佔畢齋先生年譜』로 보유하였다. 1869년 기사본은 詩 600여 수를 산사하면서 시집은 전면 개판하고 문집은 보관하여 사용하고, 기유본에 보유한 체제를 그대로 따랐으나 『부문인록』은 10명을 더 추가하였다. 1892년 임진본은 기사본을 보관하고 다시 『이준록』을 보유하였다. 따라서 『점필재집』의 판본계통은 1520년 경진본 · 1649년 기축본 · 1869년 기사본의 세 계통이다. 파생된 판본은 1649년 기축본에서 1789년 기유본이고, 1869년 기사본에서 파생된 판본은 1892년 임진본과 1917년 大正6년본과 1938년 昭和13년본이다.

『점필재집』은 현존하는 異本 중에서 가장 앞선 판본은 경진본이며, 다시 판각하였으나 기축본은 경진본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기유본도 역시 기축본의 보관으로 경진본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기사본은 새로운 축약판으로 가장 앞선 판본인 경진본의 체제와는 전혀 다른 체제를 갖추었다. 이 중에서 善本을 설정한다면 先本계열에서 확정해야한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先本인 경진본의 현황과 국내 소장자 및 소장처는 다음 도표와 같다.

<표 12> 국내 경진본 현황과 소장처

所藏處(者)	所藏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詩4~11卷, 詩16~19卷, 3冊
계명대학교 중앙도서관	詩4~7卷, 1冊
서강대학교 료올라 도서관	詩1~8卷, 2冊
옥산서원 태극관	詩1~3卷, 文2卷, 2冊
전 계명대학교 이원주 유족	詩1~12卷, 詩19~23卷, 文1~2卷, 6冊
김두현(봉화)	詩12~15卷, 1冊
충남대학교 도서관	悔堂稿, 1冊
국립중앙도서관	序만 있음
연세대학교	13~18卷 2冊

先本은 가장 이른 판본으로 경진본이 되어야 하나 국내에는 경진본의 완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부분적으로 零本이 남아 산재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先本은 아니나 경진본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 기축본을 善本으로 잠정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축본을 『점필재집』의 善本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점필재집』의 善本은 原本에 가깝고 가장 앞선 先本이면서 인쇄상태가 좋은 경진본으로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경진본도 보관된 판본들 그것도 零本으로 남아서 善本이 될 수 없다. 국내에 남아있는 판본의 실정이 여의치 않아 『점필재집』 先本의 조건에 부합하는 판본을 국외에서 찾아보았다. 일본의 輪王寺에 다음과 같은 서지사항을 갖춘 판본이 존재하였다.

書名: 佔畢齋集 二十三卷, 佔畢齋文集 二卷, 悔堂稿 一卷 八冊.

撰者: 朝鮮 金宗直撰

版種: 木版本

刊者: 甥 康伯珍

刊年: 中宗15년 庚辰(一五二0) 秋刊

刊地: 慶尙道 善山

版心: 上下中黑口 上下内向黑魚尾 魚尾間「畢齋卷幾 幾」

構成: (1)序(無界五行七至九字行草書)(中宗十五年庚辰(一五二0)南宮月上 潯南袞 (2)佔畢齋卷之一(至二十三) (3)佔畢齋文集卷之一(至二) (4)(悔堂稿)撰者傳: 金宗直, 字는 季昱, 號는 佔畢齋·悔堂, 諡文簡, 善山人

所藏者: 輪王寺 天海藏¹²⁾

위의 서지사항을 보면 비록 보관본이기는 하나 『회당고』를 갖추고 있어 先本이면서 善本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는 완질의 경진본이 없으므로 일본의 輪王寺의 경진본을 입수할 때까지 善本을 대신할 판본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善本을 대신할 국내의 산재한 경진본을 모아 再構해야만 한다. 이는 일본의 輪王寺 소장본에 가깝게 再構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再構本에 반드시 『회당고』가 편제되어야 한다. 재구하기 위해 국내에 산재한 경진본을 冊과 卷數별로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3> 경진본 소장처의 소장 현황

冊	卷	所藏處(者)
1	詩1~3卷	옥산서원, 국립중앙도서관(序만 있다), 서강대학교 료올라도서관, 전 계명대 교수 이원주 유족(대구)
2	詩4~7卷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한적실, 서강대학교 료올라도서관, 전 계명대 교수 이원주 유족(대구), 계명대학교 중앙도서관
3	詩8~11卷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한적실, 전 계명대 교수 이원주 유족, 서강대학교 료올라도서관(8卷만 있다)
4	詩12~15卷	김두형(봉화), 전 계명대 교수 이원주 유족(대구, 12卷만 있다)
5	詩16~19卷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한적실, 전 계명대 교수 이원주 유족(대구, 19卷만 있다)
6	詩20~23卷	전 계명대 교수 이원주 유족(대구)
7	文1卷	옥산서원, 전 계명대 교수 이원주 유족
8	文2卷	전 계명대 교수 이원주 유족
9	悔堂稿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위의 표의 잔존하는 경진본에서 輪王寺 소장의 경진본과 유사하게 재구성해야 한다. 모든 경진본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경진본은 두 가지 형태의 編次를 보이는데 詩1卷・文1卷・詩2卷・文2卷・詩3~23卷의 배열과 詩1~23卷・文1~2卷의 배열이다. 이 중에서 후자의 배열이 가장 이른 先本이며 일본의 輪王寺 소장본과 편차가 같은 계열의 간인본이다.

12)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集部』(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 833.

詩1卷 바로 뒤에 文1卷, 詩2卷 뒤에 文2卷, 詩3~23卷 순서의 편차로 되어있는 것은 전 계명대 교수 이원주 유족의 소장본뿐이다. 이 판본은 도난당하였다가 독특한 편차로 인해 되찾은 판본이기도 하다. 이점은 계명한문학회에서 영인한 『점필재집』이 先本계열이라도 원본에 가까운 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원본에 가까운 편제는 詩1~23, 文1~2, 『회당고』의 편제가 되어야 하므로 『점필재집』은 다시 재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점필재집』의 판본을 재구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에 산재한 판본을 조합한다면 詩1~3卷의 선정은 전 계명대 교수 이원주 유족의 소장본은 편차가 일본 輪王寺 소장본과 편차가 다르므로 제외하고, 서강대학교 료료라도서관 소장본은 南裒의 序와 1張이 낙장되어져 제외하고, 옥산서원 소장본을 선정하여야 한다. 詩4~11卷은 역시 다른 편차를 보이는 이원주 선생 유족의 소장본 보다는 같은 편차를 지녔으며 보관상태가 좋은 고려대학교 소장본을 선정하고, 詩16~19卷은 고려대 소장본뿐이므로 이를 선정하고, 詩20~23卷은 이원주 선생 유족만이 소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선정하여야 한다. 文은 소장처가 많지 않은데 옥산서원에 1卷이 이원주 선생 유족이 1~2卷을 소장하고 있다. 文1卷은 이원주 선생 유족의 소장본보다는 인쇄나 보관상태가 좋으면서 輪王寺 편차와 동일한 옥산서원 소장본을 선정하고, 文2卷은 이원주 선생의 유족 소장본뿐이므로 이를 선정하고, 『회당고』는 충남대학교 소장본뿐이므로 충남대학교 소장본을 선정하여 재구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구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재구본이 형성된다.

<표 14> 경진본의 재구본 작성을 위한 구성

구분	卷數	所藏處(者)
1	詩 1~3卷	옥산 서원
2	詩 4~11卷	고려대학교
3	詩 12~15卷	김두형(봉화)
4	詩 16~19卷	고려대학교
5	詩 20~23卷	전 계명대 교수 이원주 유족(대구)
6	文 1	옥산서원
7	文 2	전 계명대 교수 이원주 유족(대구)
8	회당고	충남대학교

위의 표와 같이 경진본을 모아 조합하여 재구본을 작성하면 일본 輪王寺의 경진본에 가까운 판본으로 再構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재구에서 끝나지 않고 일본의 尊經閣 소장본과 輪王寺 소장본과 대비하여 차이점과 어떤 것이 先本이면서 善本이 되어야 하고, 무엇이 原本에 가까운지도 비교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후일로 미루기로 하겠다.

4. 결 론

『佔畢齋集』의 판본은 초간본 1495년(乙卯) 文1권 목판본 · 1498년(戊午) 시집5권의 활자본으로 시작하여 1520년(중종 15) 庚辰本, 1649년(인조 27) 己丑本, 1789년(정조 13) 己酉本, 1869년(고종 6) 己巳本, 1892년(고종 29) 壬辰本, 1917년 丁巳本, 1938년 戊寅本까지 440여 년간 총 8종이라고 알려졌다. 이 중에서 현존하는 이본은 7종이라고 한다. 異本사항을 계통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初刊本은 1495년 文1권 · 1498년 詩5권은 무오사화로 연산군의 韋판 및 소각 처리하라는 교시로 존재하지 않는다.

再刊本은 1520년(중종 15) 庚辰年에 간행되었다. 남곤의 서문과 시23권과 문2권으로 선산에서 간행하였다. 이를 庚辰本이라고 한다. 경진본은 국내에 완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일본의 輪王寺에 소장되어있는 『점필재집』이 『悔堂稿』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함께 간행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판심을 대비한 결과 동시에 짚을 지어 간행된 듯하고 보판이 이루어질 때 함께 보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판목은 『고사촬요』에 선산에 보관되었다고 하나 『고사촬요』는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壬亂이후의 상황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판목은 임진왜란 이후 전란으로 소실되었다.

三刊本은 1649년(인조 27) 기축년에 경상도관찰사 이만에 의하여 간행되었다. 이를 기축본이라 한다. 기축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彝尊錄』이 포함된 판본과 포함되지 않은 판본이다. 이 판본은 몇몇 연구자들

이 경진본이 수차례 보관되어진 것이라 주장하지만 판심과 字를 대비한 결과 다른 판본이었다. 그러나 새로이 판각된 판본이라기에는 판심의 종류가 다양해서 그 근원을 알 수 가 없다. 이 판본은 두주가 새겨져 있으며 서문과 발문이 없다. 처음에는 시문집만으로 간행되었다가 『彝尊錄』을 증보하여 후쇄하였다.

三刊本の 보관 및 후쇄한 기유본은 1789년(정조 13) 기유년에 인출되었는데 이현경의 서문을 첨부하고 『估畢齋先生門人錄』을 교정하여 보유하였으나 『彝尊錄』을 편제에서 제외하여 삭제하고 또한 『年譜』를 보유하였다.

四刊本은 1869년(고종 6) 기사년에 간행되어졌는데 그 동안 사용되어졌던 1649년 계통의 책판이 대부분 마멸되어 시집만 전면 재판각한 판본으로 시를 584首를 삭제하여 시집8권으로 축약하였다. 문집은 삼간 기축본의 판본을 보관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年譜·門人錄』과 『부록』을 증보하였다. 그러나 『이준록』은 편제에서 제외시켰다. 이 판본을 己巳本이라고 한다.

그 후 四刊本の 후쇄본인 임진본이 1892년(고종 29)에 간행되어지나 대체로 기사본을 보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송병선의 발문을 첨부하고, 기사본에서 빠진 『이준록』을 다시 증보하였다.

四刊本の 재후쇄본인 1917년 大正6년본은 책의 정보를 알려주는 현대식 標題紙가 붙어있고, 대구 재전당포 방각업자 김기홍에 의해서 보관되어진 것이다. 표제지의 정보에 의하면 발행은 대구 재전당포지만 인쇄는 밀양의 예림서원에서 이루어졌다.

四刊本の 삼후쇄본인 1938년 昭和13년본은 大正6년본과 마찬가지로 현대식 표제지가 있다. 후손 김태진의 발문이 첨부되었으며 그 이외에는 大正6년본과 차이가 없다.

이상의 간행사를 정리하면 『점필재집』은 책판을 판각한 간행은 4차례로 초간본, 1520년 경진본, 1649년 기축본, 1869년 기사본이고, 이 계통의 판본이 5차례 후쇄되면서 편제를 달리하여 여러 異本을 산출해내었다. 주로 편제에서 제외되었다가 재차 편제되어진 것은 『이준록』이고, 그 이외에 서발이 첨부되고, 점차적으로 『연보』·『문인록』 등이 증보되었다.

『점필재집』은 현재 善本을 확정할 수가 없다. 『점필재집』은 무엇보다 善本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善本은 先本계열에서 확정되어져야 한다. 先本이면서 善本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판본은 일본의 輪王寺에 소장본이 되어야 한다. 일본 輪王寺의 소장본은 『悔堂稿』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완질의 先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윤왕사에 소장되어진 先本계열의 善本을 입수할 때까지 선본에 가까운 판본을 再構하여야 한다. 이러한 再構本을 재구하여 복원한 다음 일본의 輪王寺 소장본과 다시 대비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일본의 尊經閣 소장본과 輪王寺 소장본과도 대비하여 가장 원본에 가까운 이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다.

<참고문헌>

1. 原典

- 『艮翁集』. 『한국문집총간』 234. 민족문화추진회, 1997.
- 『佔畢齋先生門徒添刊辨破錄』. 부산대학교 제1도서관 소장본.
- 『佔畢齋先生門人錄』(乙亥本). 부산대학교 제1도서관 소장본.
- 『佔畢齋先生全書』. 學民文化社, 1995. 영인본.
- 『佔畢齋集』(1917년 大正 6년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佔畢齋集』(1938년 戊寅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 『佔畢齋集』(庚辰本). 계명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 『佔畢齋集』(庚辰本). 고려대학교 대학원 도서관 한적실 소장본.
- 『佔畢齋集』(庚辰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佔畢齋集』(庚辰本). 대구 전 계명대학교 교수 이원주 유족 소장본.
- 『佔畢齋集』(庚辰本). 봉화 김두형 소장본.
- 『佔畢齋集』(庚辰本). 서강대학교 료올라 도서관 소장본.
- 『佔畢齋集』(庚辰本). 옥산서원 소장본.

- 『佔畢齋集』(己巳本). 부산대학교 제1도서관 소장본.
『佔畢齋集』(己酉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
『佔畢齋集』(己丑本) 1. 부산대학교 제1도서관 소장본.
『佔畢齋集』(己丑本) 2. 부산대학교 제1도서관 소장본.
『佔畢齋集』(己丑本). 계명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佔畢齋集』(己丑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
『佔畢齋集』(己丑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
『佔畢齋集』(壬辰本). 계명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佔畢齋集』(壬辰本). 부산대학교 제1도서관 소장본.
『佔畢齋集』. 『韓國文集總刊』 12. 민족문화추진회, 1996. 영인본.
『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 1986.

2. 單行本 및 論文

- 金光洙. “佔畢齋先生文集 研究.” 석사학위논문. 계명대 교육대학원. 1990.
김영봉. “悔堂稿에 나타난 金宗直의 初期詩 연구.” 『한국한문학연구』(1999).
김영봉. “『悔堂稿』에 나타난 金宗直의 初期詩 연구.” 『한국한문학연구』(1999)
102-106.
김윤수. “『佔畢齋集』의 판본 연구.” 『書誌學研究』 第35輯(2000).
신승운. “成宗朝의 文士政策과 文集編刊.”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94.
옥영정. “冊版目錄을 통해본 조선시대 善山지역의 목판인쇄문화 연구.” 『書誌學
研究』 第34集輯(2006).
윤상기. “密陽禮林書院板本考.” 『문화콘텐츠연구』 第9集(2004).
임정기 역. 『국역 점필재집』. 민족문화추진회, 1999.

3. 國외 서적

-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集部.”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
前間恭作. 『古鮮冊譜』. 東洋文庫, 1934, 1956, 1957.

